

광주대, 육군 최정예 학군단 선정



광주대학교(총장 김동진) 학생군사교육단이 2023년도 우수부대(학군단) 선발에서 '왕' 분야 최정예 학군단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사진)

광주대 학생군사교육단은 지난 1년 동안 ▲전투준비 ▲후보생 교육훈련 ▲학군단 운영 분야에서 고르게 우수한 평가를 받아 전국 대학교에 설치된 육군 학생군사교육단 가운데 최우수 학군단의 영예를 안았다.

광주대학교는 학군사관후보생들에게 장학금 전액 지급 및 국내의 탐방, 리더십 및 드론 교육 등 후보생들에게 특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해 우수 후보생 모집과 육성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

목포대, 청년 창업 IR 컨퍼런스 성료



국립목포대학교(총장 송하철) 창업교육 혁신 선도대학사업단(이하 SCOUT사업단)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간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에서 호남·제주권 SCOUT 사업단이 공동주관해 호남·제주권 예비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청년 창업 IR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번 '청년 창업 IR 컨퍼런스'는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창업교육 혁신 선도대학(SCOUT) 사업이 출범하면서 호남·제주권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대학 간 지역의 창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창업교육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고, 예비창업자들의 투자유치 등 다양한 행사로 구성됐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클래식 기타리스트 서만재 구스만 명예 디플로마 수상



광주에서 활동하는 서만재(왼쪽) 클래식 기타리스트가 '기타의 여왕'으로 불리는 스페인의 마리아 에스텔 구스만이 수여하는 명예 디플로마를 받았다.

전설의 기타리스트 안드레스 세고비아의 마지막 제자였던 마리아 에스텔 구스만은 40년 넘게 세계 최고의 클래식 기타리스트 자리를 고수하고 있는 음악인이다.

구스만은 서만재 기타리스트에 대해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자신과 함께 열정, 헌신, 엄격함을 바탕으로 클래식 기타와 스페인 음악을 탁월하게 연구 및 연주해 온 음악인"이라고 말했다. 구스만이 명예 디플로마를 수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평택대 음악학과에서 클래식 기타를 전공한 서 씨는 스페인 마드리드 왕립음악원, 스페인 그라나다 왕립음악원을 졸업했다. 후학양성에도 힘써 한국교원대 전임 강사로 정년퇴임했으며 한국 최초 클래식 기타 전공 교사를 배출했다. 2010년~2018년까지 미국 카네기홀 등 국내외서 다채로운 공연을 펼쳤으며 현재 광주가톨릭대학교 클래식기타 전임강사로 활동 중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김동수 적십자 광주·전남혈액원장, 저서 인세 기부

김동수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장이 지난해 7월 발간한 저서 '나눔으로 행복한 시간'을 통해 받은 첫 인세를 기부했다. (사진)

김 원장은 저서 발간 후 발생한 첫 인세(저작권료) 100만 원을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에 전달했으며, 해당 기부금은 설 명절을 앞두고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빵을 만드는 '헌혈자와 함께하는 제빵봉사활동' 프로그램 진행에 활용될 예정이다.

저서 '나눔으로 행복한 시간'에서 김 원장은 자신이 30여 년 동안 대한적십자사에서 근무하며 겪은 재난구호와 봉사활동 현장에서의 경험,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나눔의 방법 등을 소개한다. /이유빈 기자 lyb54@kwangju.co.kr



김동수 원장은 "오늘 인세 나눔은 독자 여러분이 직접 기부해주신 것이나 다름 없다"며, "최근 E-북으로도 발간된 저서를 더 많은 분들이 읽고 나눔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어 나눔 문화가 확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 미래로21병원, 호남대 간호학과에 장학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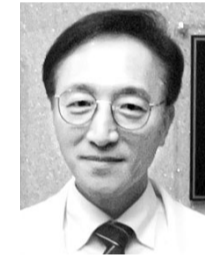


광주 미래로21병원(대표원장 배원태)이 18일 호남대학교 간호학과(학과장 하운주)에 장학금 300만 원을 기탁했다. (사진)

호남대학교 건학관에서 열린 이날 기탁식은 미래로21병원 박정우 원장, 명미경 간호부장, 호남대 간호학과 하운주 교수, 김은아 교수 등이 참석했다.

박정우 원장은 "병원이 추진하는 장학사업이 우수한 간호 인재 육성에 큰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매년 장학금 300만 원을 기부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김성훈 목포예치과 원장 전남 나눔리더 치과의사 2호 가입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노동일)는 김성훈(사진) 목포예치과 원장이 전남 나눔리더에 치과의사 2호로 가입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혼자서 잘 사는 것보다 이웃들이 다함께 웃으며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어서 나눔리더 가입을 결심하게 됐다"고 전했다.

전남13호(목포2호) 아닌 소사이어티 회원인 김 원장은 목포시 청소년들을 위한 장학금 1000만 원을 전달하고 섬 지역 무료진료 봉사활동을 펼치는 등 사회공헌 활동에 관심을 갖고 이웃과 상생하기 위해 나눔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유빈 기자 lyb54@kwangju.co.kr

TV프로그램 24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시간	KBS1	KBS2	MBC	KBC/SBS
00	00 KBS 뉴스광장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10 결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07	50 인간극장	00 해 불만 아침 M&W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세 번째 결혼(재)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08	25 아침마당		30 생방송 오늘 아침	40 맨 인 블랙박스 스페셜 50 좋은아침
09	30 KBS 뉴스	00 KBS 아침 뉴스타임 20 피도 눈물도 없이(재)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50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쇼트트랙 혼성 계주)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인간극장 스페셜 40 농천에는 따라잡기 베스트	45 뽀뽀뽀 좋아 좋아 스페셜	
11	00 생로병사의 비밀(재) 50 세계는 지금 스페셜(재)	00 환상연가(재)	15 푸르거 식사교실(재) 45 주니토니아(재)	00 애니캐러리 30 안녕 자두야 45 헬로커파 X
12	00 KBS 뉴스 12	15 개는 훌륭하다(재)	00 12 MBC 뉴스 25 헬로킴즈 동물교실3(재) 55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00 SBS 12뉴스 25 만방 네트워크 뉴스 55 보물지도
01	00 한국인의 밥상(재) 50 고려 거란 전쟁 스페셜(재)	30 꽃잠 영화가 좋다 베스트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55 2시 뉴스 이전	55 닥터 365
02	00 KBS 뉴스 10 2024 강원 동계청소년 올림픽 (스노보드 슬로프스타일 여자)			00 뉴스브리핑
03		00 KBS 뉴스타임 15 시간여행자 투쿠(재) 30 TV 유치원	55 5시 뉴스	
04	00 시사건건	00 스튜디오 K 스페셜 30 영상앨범 산(재)	55 5시 MBC 뉴스	00 시장의 폭격 스페셜 55 닥터 365
05	00 KBS 뉴스 5 10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강정연설-국민의힘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재)	00 신비아파트 고스트볼 제로 30 꽃잠 영화가 좋다	10 PD수첩(재)	00 SBS 오뉴스 50 KBC뉴스와이드
06	00 6시 내고향	00 KBS 뉴스 6 40 2TV 생생정보	05 본방을 보자	45 닥터 365 50 생방송 투데이
07	00 뉴스7 광주전남 40 KBS광주 신년기획 '백터뷰' 2024 호남의 미래를 묻다	50 피도 눈물도 없이	05 세 번째 결혼 4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08	30 우당탕탕 패밀리	30 월드 24 55 살리는 남자들		30 KBC 8 뉴스
09	00 KBS 뉴스 9		00 밤에 피는 꽃(재)	00 골 때리는 그녀들
10	00 생로병사의 비밀 50 KBS 뉴스라인W	15 스모킹 건	20 놀면 뭐하니? 스페셜 30 라디오스타	40 브로 앤 마블
11	30 이슈 픽 쌤과 함께 스페셜	15 아이 러브 스포츠 40 고려 거란 전쟁(재)		
12	00 시사기획 창(재) 50 사랑의 가족(재)	40 KBS 재난방송센터(재)	15 나 혼자 산다 스페셜	00 열린예술무대 뒤란(재)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10 한국의 둘레길	17:20 뒤죽박죽의 빅풋패밀리 쇼츠
05:30 클래식 e	10:30 한국기행(재)	17:25 허풍선이 미술쇼
05:50 한국기행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40 웃기는 처음 영어(재)
06:10 세계테마기행	11:20 세계테마기행	18:10 다이노스티(재)
07:00 허풍선이 미술쇼	12:00 EBS 뉴스 12	18:40 EBS 뉴스
07:15 시뮬	12:10 다큐영화 길 위의 인생	19:00 한국의 둘레길
17:30 엄마 까투리	13:00 EBS 평생학교 1교시	19:20 고향민국
07:45 레인보우 버블럼	13:45 EBS 평생학교 2교시	19:50 귀하신 몸(재)
08:00 당동맹 유치원	14:30 EBS 평생학교 1교시	20:40 세계테마기행
08:20 웃기는 처음 영어	15:15 강신주의 장자 수업	<이것이 진짜! 내맘 예베레스트 -슬기로운 산중 생활>
08:50 고고다이노 공룡탐험대	16:00 영어 스토리 타임	21:35 한국기행
09:05 최고! 호기심딱지(재)	16:10 똑똑 문해력 박사	<겨울 할매니얼 3부 할매, 밥 뭉키까?>
09:20 인간이 되자(재)	16:40 당동맹 유치원(재)	21:55 왔다! 내 손주
09:40 탑골공원 개칭(재)	17:00 페퍼 피그	22:45 교육기획 대한민국, 교육이 희망이다
10:00 안전채널 e	17:10 마사와 곰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월 24일(음 12월 14일 丁亥)

36년생 굳이 힘들어서 남에게 구할 필요 없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알뜰하다. 48년생 쉬은 일부러 처리하는 것이 중결을 알뜰하다. 60년생 기대하여 왔던 이가 실망을 줄 수 있다. 72년생 잔물결이 항해에 주는 역할은 미미하다. 84년생 흥왕의 기운이 넘치니 즐거운 일이 겹칠 수 있다. 96년생 천재일우의 기회이니라. 행운의 숫자 : 36, 57

37년생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발전하는 국면에 놓인다. 49년생 긍정적인 방향으로 매듭지어질 것이다. 61년생 역할과 기쁨의 분담이 절실한 때이다. 73년생 대비하지 않으면 피해가 속출하리라. 85년생 총체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97년생 한변만으로는 불안전망으로 여러 번 신경 써야 하는 수고로움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44, 89

38년생 생산성을 증폭시키는 관계로 발전될 수도 있다. 50년생 소극적이라면 불협화음의 씨앗이 된다는 것을 알라. 62년생 예상 밖의 국면 전환으로 인해서 공허해지는 운세이다. 74년생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다. 86년생 지리멸렬한 소강상태로 정체되는 판국이다. 98년생 몸은 고달프더라도 마음은 평안하다. 행운의 숫자 : 57, 96

39년생 대다수의 목표를 성취하게 되는 길함이 보인다. 51년생 여러 가지 측면으로 가능해 될 운세이다. 63년생 계획했던 일이 드디어 진행될 것이다. 75년생 일관성을 가지고 정진하면 기쁨이 이루어진다. 87년생 사소한 것이 주원인으로 작용하는 위상이니라. 99년생 형세를 뒤집을 만한 신중의 세력이 아름답기 그지없다. 행운의 숫자 : 33, 60

40년생 당대사에 영향을 미칠 만한 제반 요소들이 연쇄적으로 나타난다. 52년생 현행대로라면 부작용을 야기할 수밖에 없으니 단계를 보완하라. 64년생 얻기는 어려우나 잃기는 쉽다. 76년생 체계적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탈이 나리라. 88년생 불합리한 점을 제거하라. 00년생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일이나 마음을 놓는다. 행운의 숫자 : 20, 84

41년생 어떠한 일이 발생하든지 간에 평상심을 유지하라. 53년생 결집을 수 있는 상황으로 비화될 수도 있다. 65년생 관용을 중시하고 순리대로 처리하면 무난할 것이다. 77년생 구체적이야만 의미가 있으니 적나라하게 파악하라. 89년생 생조짐이 보이거든 즉시 대처하는 것이 옳다. 01년생 초기 상황에서 손을 써야만 한다. 행운의 숫자 : 21, 74

42년생 빛 받고 나선다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54년생 단언시해 왔던 것 속에 허점이 있을 수 있다. 66년생 전혀 다른 영역을 접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78년생 분명한 소신을 갖고 임해야 후회하지 않는다. 90년생 더 좋은 조건으로 변경되는 판세로다. 02년생 마음을 잘 다스려야만 고비를 넘길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11, 90

43년생 만약의 생애를 가르는 마지막 고비가 될 것이다. 55년생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 버티는 것이 지혜도 숫자일 것이다 큰 격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67년생 좋은 말은 원래 듣기에 거부한 법이다. 79년생 시간과 장소를 반드시 가려서 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91년생 구분해두어야만 한다. 03년생 행운이 필자이다. 행운의 숫자 : 15, 95

44년생 작은 불편은 보이나 결코 커다란 지장이 있지는 않을 것이다. 56년생 궤를 같이하지 않으려는 요소가 보인다. 68년생 오랫동안 염원해 왔던 바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 80년생 너무나 비속비속하니 착오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자. 92년생 남 좋을 일만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하라. 04년생 다 알게 되어 있다. 행운의 숫자 : 43, 82

45년생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헛수고에 그치게 된다. 57년생 목표점에 근접하고 있으나 비효율성을 안고 있다. 69년생 중심이 되는 곳을 주목하라. 81년생 주어진 국면에 적절해야만 제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93년생 무거운 책임으로 인한 부담감을 느끼겠다. 05년생 경험에 비춰봤을 때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14, 50

46년생 세절목에 신경 쓰다가 감각을 놓칠 수다. 58년생 요점을 잘 들여다보고 있노라면 반드시 정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70년생 세심하게 신경 쓰지 않는다면 결정적인 시기에 무너져 내린다. 82년생 원리 원칙대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느니라. 94년생 겨우 체면만을 유지하리라. 06년생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리라. 행운의 숫자 : 22, 86

35년생 오랫동안 정성을 다한다면 반드시 회복하게 될 것이다. 47년생 선례를 참고한다면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 59년생 진전을 보이다가 걸림돌에 넘어진다. 71년생 형식과 내용을 두루 살펴야 하느니라. 83년생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지 않으면 혼란스럽겠다. 95년생 기쁨은 한순간일 뿐인데 아쉬움은 많이 남으리라. 행운의 숫자 : 35, 58